

대학 환경교육에서 윤리적 성찰과 공감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양지 · 홍경남*

주제분류 환경교육, 환경윤리

주요어 대학 환경교육, 윤리, 비판적 사고, 공감, 자연의 취약성

요약문

이 논문에서는 대학 환경교육에서 윤리적 성찰과 공감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논증하겠다. 환경문제에서 윤리적인 측면의 근본 물음들을 제기하고 그에 답변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이런 과정은 바로 환경에 대한 윤리적 태도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유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적어도 대학 수준에서 ‘이유’를 이해한다는 것 이상의 동기유발 요소는 없기 때문이다. 그 취약성에 관해 공감하면서 환경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이뤄내기 위해서 환경교육에 환경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 및 공감 내지 감수성 능력이 함양되고, 이는 환경 친화적인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 중앙대학교

1. 서론

환경문제는 복합적이다. 지구촌 전체에서 벌어지는 ‘지구온난화’ 문제에서부터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축산 오폐수 처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에는 사회 여러 부문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고, 이해관계인을 넘어서 많은 다른 인간과 생물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다양한 측면 중에서 어느 하나나 몇 가지 부문에서 이뤄지는 해결책만 가지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그렇지만 그 해결은 하나 또는 몇몇 부문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문제의 복잡한 측면들을 모두 아우르면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해결책이란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그런 해결을 늦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환경문제는 모두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이해만 추구하다가 하딘(Garrett Hardin)이 지적했던 ‘공유지의 비극’¹⁾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일단 우리는 환경문제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주장이 흔히 제기되곤 한다. 과학기술이 발생시킨 문제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결국 과학기술로 인한 것이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환경 과학 내지 환경 공학 기술에 있다. 그래서 환경교육도 환경 과학이나 공학의 내용에 의거해서 이뤄져야 한다. 환경 과학의 역량과 그 한계 등에 의한 고차원적인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주장이 또한 제기

1) 하딘은 공유지인 초지에 더 많은 소를 풀려고 경쟁하는 목동들의 사례를 제시한다. 목동들은 저마다 더 많은 소를 풀려고 할 것이고, 공유지는 곧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황폐화된다. 개개인의 이익 추구가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968), 1243-48쪽.

된다. 환경문제는 다양한 측면의 가치를 담고 있다. 사회경제적 측면의 가치와 더불어 윤리적 측면의 가치가 그것이다. 특히 윤리적 측면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 인간 삶의 목적과 삶의 질, 현재대와 미래세대의 관계, 다양한 가치들의 위계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한다. 환경문제의 상황이 이 모든 요소를 담고 있고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가 되고 있는데도, 단순히 방관자적인 제삼자의 차원에서 환경을 과학기술의 재료나 대상으로서만 간주하고 그 기능의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애초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환경교육의 주안점은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임을,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을 이루는 모든 부분들이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자연에 미치는 해악은 고스란히 인간인 나에게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을 다만 이용을 위한 재료나 대상이 아니라 나와 동등하게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서 여기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인식과 태도 변화는 환경문제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합리적 반성 내지는 숙고, 함께 지구 공동체를 형성하는 환경의 (파괴나 약탈을 일삼는 인간에 대한) 취약성에 관한 이해와 공감에 기초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대학 환경교육에서 윤리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논증하겠다. 이 윤리적 측면은 비판적 사고 교육과 공감 내지 감수성 교육을 포괄한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교육 과정 내에 지속적으로 물어질 수 있다. 인간을 행복으로 이끄는 조건은 무엇일까?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타자(환경을 포함하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인간과 비인간이 뒤섞여 있는 지구 공동체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답변하는 과정은 바로 윤리적 태도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유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대학생 정도의 이해 수준에서 ‘이유’를 이해한다는 것 이상의 동기유발 요소는 없기 때문이다. 필자들은 이렇게 대학 환경

교육의 윤리적 특징을 분석하고 추출하여, 그런 윤리적 특징이 충분히 환경교육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논증할 것이다.

2. 대학 환경교육의 윤리적 측면

1) 대학 환경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대학에서 환경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은 ‘환경교육’을 가르치는 학과의 교과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 교양 과정으로 개설된 환경 과목의 수업 목표는 어떤 것인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환경교육을 가르치는 대학 학과의 경우, 1994년 전국 20개 대학의 환경관련 학과에서 교직과목으로 환경과목을 개설하였고, 1996년부터는 공주대, 목포대, 순천대, 한국교원대에서 사범대학에 환경교육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²⁾ 환경교육과의 커리큘럼 구성을 보면 교수법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공계 전공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그 주요 과목은 환경공학개론, 환경미생물학, 환경화학, 폐기물관리, 수질관리, 환경관계법규, 오염공학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학과 목표는 “환경교육의 주된 배경 학문으로 볼 수 있는 환경과학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환경교육의 발전 및 환경문제의 이해와 해결에 기여한다”로 설정되고 있다. 한편 대학 교양과정으로 개설된 환경과목의 수업 목표는 대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개 ‘지속가능성’에 치중하는 환경과목들이 직업과 진로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여 폐강되는 사태³⁾에 맞추어 ‘지속가능성’의 개념만큼이나 ‘발

2) 이용필 외 3인, 『지구촌 생태계 위기와 환경윤리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202쪽, 각 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전'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과목이 다수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다.)⁴⁾

요컨대 환경교육을 가르치는 학과나 환경 관련 교양과목들 모두가 '환경'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기보다는 그 환경을 이용하는 '인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는 환경교육이 '개발', '발전', '성장' 등의 개념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환경문제의 성격

환경문제는 아주 복잡한 요인을 담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신문 기사 사례를 들어 어떤 요인들이 환경문제에 담길 수 있는지 살펴보자. 다음은 조력발전소 건설 관련 신문 기사를 부분 인용한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에 따라 전기를 얻기 위해 발전소를 건설할 것인가,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331호)으로 상징되는 생명과 어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보전할 것인가.) 충남 서산 태안을 아

- 3) “현재 대학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녹색성장교육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학생과 교수자의 관심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미 상당수의 대학들이 학생들의 직업과 진로 교육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대학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본 과목이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본 교육프로그램이 실제로 확산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박태운 외 2인, 『대학 녹색성장 교과목 개발』 연구보고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3, 4쪽.
- 4) “미국의 상당수 주요 대학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제간 연구와 교수를 진행하고 있다. 브라운대와 버클리대, 남가주대, 조지아공대, 튜레인대학 등은 환경을 자연과학적으로는 물론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자연과학의 개설강좌는 환경공학과 생태학 등이 주종이고 사회과학의 개설강좌는 환경법과 환경경제, 환경사회학 등이며, 인문과학의 개설강좌는 환경철학, 환경윤리, 환경정의론 등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정부나 환경부 산하 국책연구소 그리고 심지어 대학조차도 환경문제를 학제간 연계접근이나 협동 연구과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와 연구소, 기업에서는 환경공학과 경제학적 접근만이 유일한 방도로 간주되어질 뿐이다. 대학에서도 시장의 논리에 기초해서 경쟁력이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학적 연구가 주종일 뿐이다.” 이용필 외 3인, 『지구촌 생태계 위기와 환경윤리교육』, 238쪽.

우르는 가로림만(해안선 길이 162km)은 지난 8년 동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1980년 당시 경제장관협의회에서 가로림만을 조력발전 후보자로 결정했지만 20년 넘게 바닷물은 자유로이 들고 났다. 2006년 3월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자 천혜의 갯벌을 자랑하던 이곳은 ‘싸움벌’이 되고 말았다. 2007년 해양수산부의 환경가치평가 연구 용역에서 가로림만은 환경가치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바로 그해부터 지금까지 보완에 보완을 거듭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사업자와 정부를 오가는 사이 주민 갈등은 매마른 갯벌처럼 더 갈라지고 깊어지고 있다.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서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를 잇는 만의 들머리에 사업비 1조 22억원을 들여 2.02km짜리 댐을 세우고 26MW급 발전기 20개를 건설한다는 게 사업 계획이다. 2012년 환경부에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뒤 잠잠했던 가로림만은 지난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격랑에 휩싸였다. 찬성과 반대 쪽 주민들이 앞다퉈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사업자의 거듭된 추진 시도에도 불구하고 조력발전소를 둘러싼 객관적인 타당성 평가는 어느 정도 내려진 상태다. 사업자의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모두 지난달 ‘건설 불가’나 ‘재검토’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국책연구기관이 조력발전소 ‘사업 불가’를 공식 의견서로 낸 것은 처음이다.⁵⁾

이 기사에서 가로림만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존재를 꼽아보자. 우선 가로림만을 생계의 터로 삼고 있는 어민들이 있다. 가로림만 개발 공사를 수주하려는 개발업자들이 있다. 가로림만이 개발되면 절멸할 가능성이 높은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이 있다. 의무 할당제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에 기초한 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있다. 전기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 소비자들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다. 가로림만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로림만을 터전으로 삼을 미래 세대들이 있

5) 한겨레 2014.05.18 「조력발전소 건설이나 갯벌 보존이나 ‘싸움벌’된 가로림만.

다.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가로림만에서 생명을 얻는 많은 생물들이 있다. 지금까지 열거한 이해당사자는 사실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이해관계의 사슬을 들춰내다보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환경은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무수한 이해관계가 얽힌 환경문제를 단박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척도처럼 여겨지곤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환경의 영향은 위에서 열거된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어떻게 일개 사업자가 그런 영향을 모두 헤아릴 수 있을까? 실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록되는 환경영향은 인공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들어설 인공물에 미치는 영향인 경우도 흔하다. 이는 결코 온전한 의미의 ‘환경영향’일 수 없다.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는 그 무수한 이해당사자 중 특정인에 치우쳐서 이뤄져선 안 된다.⁶⁾ 수많은 사람들 사이의 끊임없는 논의와 상호 이해와 타협과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온건한 의미의 민주주의적 담론이 환경문제의 해결에는 필수적인 것이다. 예컨대 이런 물음이 진지하게 물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 건설은 꼭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도 점박이물범을 포함한 가로림만 생태계를 보전할 방법은 없는가? 에너지를 주로 소모하는 도시나 공장은 에너지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할 가로림만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을 치를 수 있는가? 점박이물범과 같은 종이 멸종되어버릴 때 자연 생태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연 종이 지구를 유지하는 중요

6) 이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의 구조적 난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사업체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고 나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게끔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기관과 사업체 사이에 갑을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기관은 사업체의 돈을 받고 평가를 수행하기에 평가 내용 자체가 사업체의 의향을 반영하여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TV뉴스 2016.01.04. 「환경규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참조.

한 부분이라면 그 역시 일부에 불과한 인간이 다른 자연 중을 파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제 환경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분명해진다. 학생들에게는 환경문제 해결 과정을 극적으로 시연(dramatic rehearsal)⁷⁾해볼 과제가 주어질 것이다. 특정한 한 환경문제가 다루어진다면, 우선 그 문제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나 이해 당사자를 분별해내야 한다.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양 측의 이유가 가능한 모두 검토되어야 하고, 심지어는 환경에 대한 가치관까지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이 과정은 곧 비판적 사고의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해결책이 제시된다고 해도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새로운 요인이 나타나 그런 해결책이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런 해결책을 시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물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논의를 통한 합의는 지켜져야만 한다. 그리고 환경의 안정성을 위해서 합의가 술하게 번복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려면 타자의 입장에 서서 타자를 이해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태도와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다. 환경교육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요인이 분명해진 것이다. 사실 환경 과학과 공학에 의한 내용 이해는 그런 태도와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력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왜 그 학습의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고 있는가?

3) 윤리적 환경교육의 특징

(1) 비판적 사고와 환경에 대한 태도

7) 이 극적 시연은 존 듀이의 개념이다. 듀이에 따르면, 반성이나 숙고란 다양한 가능한 경쟁적 행위 노선들을 상상 속에서 극적으로 시연하는 것이다. Steven Fesmire, *John Dewey - Moral Imagination*, Indiana Univ. Press, 2003, 69-91쪽 참조.

환경교육이 윤리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일단 대학의 윤리 교육은 어떤 강령을 가르치거나 규칙을 가르치는 것일 수 없다. 어떤 규칙을 가르칠 것인지 정하는 것 자체가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교육 자체가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미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상당히 정립된 상태로 대학에 온다. 이들을 자극시켜 태도 변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은,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반성이나 숙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이는 곧 대학의 윤리교육에 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가 하는 이유다.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듀이를 인용하며, 비판적 사고가 없다면 대학은 순전히 주어진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순응적 인간을 양산할 뿐이고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도 해가 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아이들에게 사실만을 가득 주입시키고 그것들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풀이하여 학습하게 하는 교육법은 교육에 하등 보탬이 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생각에 책임을 지는 법을, 호기심과 비판 정신을 지니고 세계와 뒹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듀이의 주된 관심사는 적극적이며 호기심으로 가득 찬, 비판적이며 서로 존중할 줄 아는 민주적 시민의 양성이었다. ... 전통적으로 학교는 듣는 곳, 흡수하는 곳으로 취급되어왔고, 분석과 감별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듣기나 청취가 선호되어왔다. 학생에게 수동적인 청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교육은 단순히 학생의 활발한 비판 능력들의 개발을 저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비판 능력들을 적극적으로 약화시킨다. 아이는 그 어떤 지적인 열망도, 조심성도, 질문하려는 태도도 없이 책을 만나며, 그 결과는 개탄스럽기 그지없을 정도로 모든 이에게 공통되는 현상이다. 즉 사색과 탐구의 활기를 약화시키고 불구화하는 것 으로서의 책에 대한 노예적 의존 현상이 그것이다. 이런 노예적 태도는 인간의 삶 일반에 나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치명적이다. 민주주의는 경계하며 깨어 있는 적극적 시민들 없이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아이는 듣기보다는 늘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사물의 실상을 알아내고, 사물들을 생각해보고, 질문들을 제기해야 한다.⁸⁾

환경교육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니 특히 환경교육에는 비판적 사고가 요구된다. 환경에 대한 태도 변화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큰 변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기존의 환경교육은 흔히 ‘지속가능한 개발’ 내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환경교육의 초점이 ‘지속가능성’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개발’ 내지는 ‘발전’의 개념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개발’이나 ‘발전’의 개념은 환경문제 해결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주로 강조한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이 대개 인간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보면, 그것에 중심을 둔 환경교육은 환경이 갖고 있는 고유한 측면이나 환경과 인간이 맺는 관계의 측면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한다. 즉 환경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이 누락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는 온당한 의미의 환경교육이 아니다. 이는 ‘비판’이 결여되고 순전히 인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기존의 근시안적인 환경 정책 옹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개발(예컨대 생태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오래된 늪지를 없애면서 새로운 단기적으로 인간이 보기에만 그럴듯한 ‘늪지’를 조성하는 등의) 허가를 남발하는 정책 등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적어도 대학에서 환경교육은 ‘지속가능성’이라는 (환경과 인간에) 중립적인 개념에 기초하면서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비판적으로 시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환경’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이 환경문제의 해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그 다양한 시각을 비판적으로 점검해보는 일이 꼭 필요할 것이다. 환경 윤리관과 관련한 논쟁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는 헤츠헤츠 계곡과 관련한 논쟁 사례다. 데자르

8) 마사 누스바움,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우석영 옮김, 궁리, 2011, 119-120쪽.

댐은 헤즈헤치 논쟁 사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⁹⁾

20세기 초,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인접한 헤즈헤치 계곡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하자는 제안을 두고 중요한 토론이 벌어졌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물이 부족하자 헤즈헤치 계곡을 수몰시키자는 계획안이 나왔다. 초기의 가장 저명한 미국의 환경론자인 핀쇼(Gifford Pinchot)와 뮤어(John Muir)가 논쟁의 중심부에 있었는데, 이는 환경 문제에 대한 두 개의 유력한 견해를 상징하게 된다. 핀쇼는 미국 산림청의 청장으로서 산림 지역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림 지역을 보호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기본 방침은 공유지는 대중의 필요와 사용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핀쇼는 저수지를 건설하려는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의 계획을 지지했다. 헤즈헤치 계곡 댐 건설을 통해 수백만의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자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사용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뮤어는 시에라 클럽의 창립자이자, 자연보전운동의 저명한 대변자이다. 뮤어는 헤즈헤치 계곡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 자원을 인간의 소비를 위한 단순한 상품으로 보는 보호관리주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뮤어는 야생의 정신적이고 심미적인 가치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했다. 어쨌든 그의 견해에 따르면, 헤즈헤치 계곡은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야 하며, 이를 파괴하려는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핀쇼는 인간의 필요에 비추어 환경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주장하고 있고, 뮤어는 인간과는 무관하게 환경의 가치가 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전자의 입장을 인간중심주의라고 칭하고 후자의 입장을 생태중심주의라고 칭한다. 그런데 이 두 입장은 모두 문제가 있다. 인간중심주의 입장은 극심한 환경 파괴를 (그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기에) 막을 수 없다. 이는 적어도 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9) J.R. 데자르탱, 『환경윤리』, 김명식 옮김, 자작나무, 1999, 76-81쪽 참조.

환경을 아우르는 적절한 윤리적 입장이 될 수 없다. 생태중심주의 입장은 전통적인 가치론에 물든 사람들에게 그 정당화 근거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전통적인 가치론에 따르면, 모든 가치는 인간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이 어떤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경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인간과 무관한 가치를 의식할 수 있는 자란 없기에 그런 가치 부여는 납득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교육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장 온건한 입장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입장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중심주의에도 속박되지 않고 생태중심주의에도 속박되지 않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가치가 부여되는 대상이 사물이 아니라 행위나 과정이라면 어떨까? 대표적으로 듀이(John Dewey)가 이런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듀이는 환경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는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낳는 것이라고 규정했다.¹⁰⁾ 최근의 윤리학자 중에서는 존슨(Mark Johnson)이 또한 과정을 강조하는 윤리관을 내비쳤다. 그는 과정 속에서 이뤄지는 상상적 활동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¹¹⁾ 애초에 가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고, 우리의 상상적 활동은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임을 자각하면서 역시 환경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낳는 행위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이 입장은 어느 ‘-주의’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합리적 이성과 공감적 감수성에 의지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할 틀을 마련해줄 수 있다. 또한 모든 유기체의 행위나 생명 과정은 그 유기체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관계 속에서 이뤄지고 이는 곧 개체의 행위가 전체의 변화로 이어짐을 뜻하기에, 지구 전체의 환경을 위해서 중요한 다양한 생물종의 유지

10) Hugh P. McDonald, *John Dewey and Environmental Philosophy*, State Univ. of New York, 2004, 123-141쪽.

11) 마크 존슨, 『도덕적 상상력 - 체험주의 윤리학의 새로운 도전』, 노양진 옮김, 서광사, 2008, 371-427쪽 참조.

가 개체 모두에게 안겨지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2) 공감을 통한 자연의 취약성 인식

자연 환경이 갖는 취약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스터 섬의 비극¹²⁾은 바로 이런 자연 환경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자연 환경이 임계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연 환경이 무너지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자연 환경을 대할 때 그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약성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되곤 한다. 우리는 이를 자연에 그대로 적용하여 우리가 자연과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자연의 취약성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취약성 내지는 자연의 취약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공감이나 상상력의 능력이 필요하다. 김주현, 오창은은 특히 대학의 교양 교육에서 학생들의 상상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상상력이 공감 및 취약성의 개념과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¹³⁾

상상력은 ‘공감능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공감능력은 타자의 세계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음을 지적으로 인식하고, 감성적으로 감각하는 것이다. 세계와 주체의 관계 속에서 주체의 취약성을 인식한 존재

12)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섬인 이스터(과거 많은 주민이 거주했음이 확인되고 있는)에는 왜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설명에 의하면, 경작지 확보 및 석상 건립을 위한 무분별한 나무 벌채가 단백질 공급원의 감소 및 원주민의 소멸로 이어졌다. 취약한 자연은 임계점을 가지고 있고 그 임계점을 넘어서 자연에 가해지는 인간의 행위는 결국 자신의 멸망으로 이어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13) 김주현, 오창은, 『문화예술 영역 교양교육 개선 방안 연구』, 『교양학연구』,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15, 85쪽.

가 타자에게 틈을 열어둠으로써 공감의 가능성은 생긴다.

누스바움도 세계 이해에서 상상력을 강조하면서, 약자의 처지를 상상해볼 수 없는 이들이 모인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¹⁴⁾

사실적 지식과 논리적 지식만으로는 자신을 주위의 복잡한 세계에 연결시킬 수 없다. 서사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는 자기 자신이 다른 이의 입장에 있다면 사태가 어떠할지 생각할 줄 아는 능력,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위치에 처한 이라면 가질지 모르는 감정과 소망과 욕구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공감능력 내지는 상상력은 어떤 방식으로 학습될 수 있을까? 사실 앞서 ‘비판적 사고’의 핵심은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태도에 있다. 이런 태도가 공감능력과 상상력을 필요로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합리적 사고의 영역을 넘어서 자연이나 환경과의 친화성이 문제될 경우 필요한 공감이나 상상의 능력은 환경과의 접촉을 점차 늘려나가는 데서 조금씩 증진될 것이다. 여기서 환경과의 접촉은 여러 형태를 띠 수 있다. 대학생으로서 당장 실행 가능한 것은 환경 텍스트를 매개로 하는 것이다. 환경 텍스트에 제시되는 환경문제의 맥락에서 자연의 취약성이 어떤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지 깊이 느끼고 그런 느낌이 환경 친화적인 해결책의 구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볼 수 있다. 또한 취약한 환경의 실상을 알리는 다크, 동영상, 사진, 그림, 시나 소설이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부담을 덜기 위한 나뭇의 작은 실천¹⁵⁾도 환경에 대한 감수

14) 마사 누스바움,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우석영 옮김, 공리, 2011, 163쪽.

15) 종이컵 사용하지 않기, 이면지 사용하기, 잔반 남기지 않기, 사용하지 않는 수도 잠그기, 수업이 끝난 교실 전등 끄기 등이 그런 작은 실천에 해당할 수 있다.

성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비록 작은 출발이지만 그런 시도가 미래의 삶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결코 작은 일만은 아닐 것이다.

3. 텍스트를 활용한 윤리적 환경교육

1) 환경교육의 재료

사례와 맞닿아 있지 않은 이론 학습은 다만 수동적인 암기 과목에 다름 아니고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없다. 일단 학생들에게 환경문제의 복잡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재료는 환경문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대 신문기사 등을 스크랩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달게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의견에는 해당 문제의 인식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숙고를 통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예컨대 과학사회학 분야의 대가인 라투르(Bruno Latour)는 『과학인문학 편지』¹⁶⁾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과학인문학 편지』는 원거리에 있는 학생에게 편지를 통해 ‘과학인문학’의 주요 생각들을 강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라투르는 우선 학생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신문 기사를 모으고 그에 대한 인상을 메모할 것을 권한다. 그런 기사들은 예컨대 “신종 인플루엔자 정치적 문제가 되다”와 같은 제목의 기사처럼 대개 과학기술의 내용과 사회 정치적인 요인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 라투르는 여기서 출발하여 실제 인간과 사물이 과학기술을 매개하여 어떤 식으로 만나 관계를 맺고 있는지 탐문해나간다. 우리는 이런 라투르의 방식을 그대로 환경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의 현재를 보여주는 신문기사, 에세이, 산문, 비디오/오디오 클립,

16) 브뤼노 라투르, 『과학인문학 편지』, 이세진 옮김, 사월의책, 2012.

노래, 그림, 조각, 춤 등이 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선입견 없이 주어진 텍스트에 녹아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의미와 그 요소들이 조직되어 있는 유기적인 방식을 파악한다. 교수자는 그런 유기적 관계들이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학생들이 스스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깨닫고 그런 공존의 단자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연출해야만 하는 역할이나 나아가야만 하는 방향성에 대해 심층적인 반성을 하게 될 것이다.

2) 환경 텍스트의 선택과 이용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반성을 자아내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텍스트를 환경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환경문제에 자리한 이해관계의 복잡성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소개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례가 대표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환경 텍스트일 수 있다.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 4대강 개발사업 사례 또한 수많은 이해관계가 자리한 문제이기에 그와 관련한 신문기사 등이 대표적인 환경 텍스트로서 활용될 수 있다.

(2) 자연물의 도덕적 지위

자연물의 도덕적 지위와 관련해서, 스톤(Christopher Stone)은 “나무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가?”라는 논문을 통하여 적극적인 옹호 논변을 펼친 적이 있다.¹⁷⁾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도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17) 그린피스의 전신인 시에라 클럽은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가 시에라 산맥에 대형

일명 ‘도롱뇽 소송’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 기사를 일부 인용한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도롱뇽 소송’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2년 8개월 가까이 끌어진 천성산 환경 파괴 논란은 법적으로 일단락됐고 천성산 13.2km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동물인 도롱뇽은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일반 개인이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에 근거해 진행 중인 공사를 중지해서도 안 된다고 판시했다.¹⁸⁾

동물, 생물, 무생물이 인간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갖느냐 하는 문제는 오랜 환경윤리의 문제다.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때 그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그런 근거가 합당한 것인지 논의하며, 그런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인간이 아닌 생물이나 무생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론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토론해볼 수 있다. 이런 토론을 통해서 자연물이 갖는 도덕적 지위에 관해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얻고 그에 대한 태도 역시 필요하다면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간 행위의 환경적 영향

스키장을 짓는 계획에 반대하는 소송을 법정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에라 클럽이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스톤은 역사적으로 법적 지위는 꾸준히 확장되어왔고 개발에 의해 파괴되는 나무와 산등성이 같은 자연물 또한 그런 권리 확장의 연장선에 놓인 것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에라 클럽을 지지했다. Christopher Stone, *Should Trees have Standing? Towards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 Kaufmann, 1977, 9쪽 참조.

18) 한국경제 2006.06.03 「도롱뇽소송 대법원서 기각」.

환경을 위한다고 하는 인간의 행위가 오히려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는 환경문제에서 근시안적인 판단이 얼마나 큰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지 드러내는 사례다. 1995년 미국 국립공원관리국은 워싱턴 주 국립 공원의 염소 300마리를 사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원래 이들 염소는 사냥감 확보를 위해 공원 안으로 들여와 살게 되었는데, 염소의 수가 너무 많아져 토양을 침식시키고 수많은 토착 생물을 멸종 위기로 몰고 가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도 노루 포획과 관련한 신문 기사를 일부 인용한다.

한라산 영물로 여겨오던 제주 노루가 멸종위기에 처하자 제주도는 1987년부터 노루 살리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때마다 노루 먹이주기 행사를 하고 도민들이 나서서 산천에 놓인 덧과 울무를 제거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노루 개체수는 2011년 2만여마리까지 늘었다. 하지만 제주 노루 보호에 성공했다는 기쁨은 잠시였다. 늘어난 노루들이 먹이를 찾아 농가로 내려오면서 애지중지했던 노루는 순식간에 골칫덩이로 전락한다. 농민들은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고, 제주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해발 400m 이하 피해 농경지 반경 1km 이내에 서식하는 노루에 한해 포획을 허가했다. 2013년과 2014년 두해 만에 2960마리의 노루가 포획되거나 사살되었다.¹⁹⁾

이처럼 노루 이외에도 소위 환경적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던 생물 종이 다시 지역 환경에 유해하다는 판단에 따라 멸종에 이르기까지 퇴치해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환경의 눈으로 보자면 인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 환경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것임은 자명하다. 즉 다만 인간의 눈으로만 환경을 보게 된다면 진정으로 환경을 위하는 좋은 결실을 얻기란 극히 어렵다는 것이다.

19) 이태일리 2015.05.23 「한라산 노루 ‘멸종위기’ vs ‘유해동물」.

(4) 사회와 환경의 관계

북친(Murray Bookchin)은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이 자연에 그대로 투영되기에 환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간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⁰⁾ 현재 자주 논의되곤 하는 ‘생태발자국’ 개념이 바로 이런 문제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와 관련된 기사를 일부 인용한다.

‘생태발자국’이란 말이 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요구되는 전체 생태 서비스를 합한 것으로, 이를 위해 사용되는 지구상의 공간을 계산한 것이다. ‘생태발자국’이라는 개념은 지구를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또다른 스펙트럼을 제시한다. 생태를 과용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수용력보다 낮은 수준에서 생태발자국을 발생시키는 것, 결과적으로 생태발자국을 줄이는 것이 ‘생태발자국’이라는 개념이 낳은 지구보전 운동의 목표다. 생태발자국 지수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핵심은 경제발전 수준이다. 생태계가 수용 가능한 능력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자원을 소비하며 빠르게 성장해온 선진국의 생태발자국 수치는 저소득 국가의 그것과 비교해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²¹⁾

인간 사회의 경제적 격차가 자연에 관한 인간의 행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파괴된 환경에 대한 책임(환경 부담금)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라는 쉽게 답변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된다. 선진국이 나서서 그런 환경 부담금을 지겠다고 모범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경문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0) 북친의 사회 생태학과 관련한 논의는 Murray Bookchin, *The Ecology of Freedom*, Cheshire Books, 1982 참조.

21) 헤럴드경제 2015.11.09 「인간 소비생태 유지하려면, 1.5개의 지구가 필요하다」.

(5) 기타 텍스트의 활용

글로벌한 환경문제와 관련한 논란거리로서 『불편한 진실』과 같은 지구 온난화 관련 다큐를 시청하거나, 기술 발전과 환경보존의 간극에 관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누가 전기자동차를 죽였나』라는 다큐를 시청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공감이나 감수성의 함양과 관련해서는 동영상과 사진(ex. 『북극곰의 눈물』 동영상, ‘선글라스를 쓴 올빼미’ 그림 - ‘빛공해’ 사진전), 그림(ex. 각종 지구환경 그림), 노래(ex. 「작은 연못, 「EVI」) 등과 더불어 시(ex. 「환경 시대, 「어떤 나무의 분노」)나 소설(ex. 『녹색사막』, 『연애소설 읽는 노인』), 에세이(ex. 『침묵의 봄』, 『도둑맞은 미래』)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4. 결론

대학에서 환경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가장 힘겨워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일 수 있다.²²⁾ 매스컴에서는 환경에 대한 수많은 말들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이런 둔감하기까지 한 무관심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에 수반된 빈약한 환경 지식을 우선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학습 경험이 적었다거나 타자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이나 감수성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그 무관심의 원인일 수 있다.

22) 물론 이는 환경관련 지식이 일정 부분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환경교육 과정에서 적잖은 학생들이 대기오염/기후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 물발자국의 개념,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현황,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서 학습하고 나서 환경문제에 관해 보다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의견을 표명하곤 했다.

그렇다면 대학의 환경교육은 이런 학생들의 무관심을 바로잡고 환경에 관심을 갖게끔 인도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는가? 실상은 환경 관련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공학적인 지식 학습이 ‘환경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서 지적한 윤리적 태도 변화나 환경에 대한 공감을 꾀하는 의미의 학습은 다만 부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환경에 대해 공학적인 관심을 갖는 소수의 학생들은 만족시킬 수 있겠지만, 환경 일반에 대해 다소의 호기심을 갖고 환경 과목을 수강하는 다수의 학생들로 하여금 오히려 환경과 거리를 두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환경문제는 환경 공학 전문가들이 해결할 일이지 일반인이 관심을 둘 일은 아니라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발전’만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역지사지하는) 윤리적 반성과 자연의 취약성에 대한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발전이나 성장에 대한 강조는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로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다만 환경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발전에 일조하도록 가공될 재료나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 환경 자체가 고유한 가치를 갖거나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로서, 최소한도 해를 입는다면 그 해가 인간에 바로 미칠 수 있는 상호 관계적 존재로서 바라보거나 생각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주현, 오창은, 「문화예술 영역 교양교육 개선 방안 연구」, 『교양학연구』,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15, 81-108쪽.
- 누스바움 (마사),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우석영 옮김, 궁리, 2011.
- 데자르맹 (J.R.), 『환경윤리』, 김명식 옮김, 자작나무, 1999.
- 라투르 (브뤼노), 『과학인문학 편지』, 이세진 옮김, 사월의책, 2012.
- 박태윤 외 2인, 『대학 녹색성장 교과목 개발』 연구보고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3.
- 이용필 외 3인, 『지구촌 생태계 위기와 환경윤리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존슨 (마크), 『도덕적 상상력 - 체험주의 윤리학의 새로운 도전』, 노양진 옮김, 서광사, 2008.
- 이데일리 2015.05.23 「한라산 노루 ‘멸종위기’ vs ‘유해동물’」.
- 한겨레 2014.05.18 「조력발전소 건설이나 갯벌 보존이나 ‘싸움벌’된 가로림만」.
- 한국경제 2006.06.03 「도롱뇽소송 대법원서 기각」.
- 헤럴드경제 2015.11.09 「인간 소비생태 유지하려면 1.5개의 지구가 필요하다」.
- 환경TV뉴스 2016.01.04. 「환경규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홈페이지 <http://sabum.kongju.ac.kr/environment>
- 목포대학교 환경교육과 홈페이지 <http://eedu.mokpo.ac.kr/index.9is>
-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홈페이지
<http://environedu.sunchon.ac.kr/web/environedu/home>
- 한국교원대학교 환경교육과 홈페이지 <http://envi.knue.ac.kr/smain.html>
- Bookchin, M., *The Ecology of Freedom*, Cheshire Books, 1982.
- Fesmire, S., *John Dewey - Moral Imagination*, Indiana Univ. Press, 2003
- Hardin, G.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968), 1243-48쪽.

McDonald, H. P., *John Dewey and Environmental Philosophy*, State Univ. of New York, 2004.

Stone, C., *Should Trees have Standing? Towards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 Kaufmann, 1977.

A Study on the Necessity of Ethical Deliberation and Sympathy in University Environmental Education

Kim, Yang Jee · Hong, Kyung Nam (Chung-Ang Univ.)

This paper relates to the cultivation of ethical deliberation and sympathy in the university environmental education practice.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ethically fundamental questions and answer them. This question and answer process might be, to university students, an incredibly powerful catalyst to change in attitude toward environments. In order to ethically deliberate on the significance of the environments to humans while being sympathetic to their weakness, it is attempted to positively utilize environmental texts in the environmental education. And in this way, the students exert or cultivate the capacities of critical thinking and sympathy so that their lives could change in an environment-friendly manner.

Key words: University environmental education, Ethics, Critical thinking, Sympathy, Weakness of nature

김양지 E-mail: yangjee4@hanmail.net

홍경남 E-mail: sensibilia@hanmail.net

투 고 일	2016년 01월 13일
심 사 일	2016년 01월 28일
게재확정	2016년 02월 17일